

현대 모자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ve Aesthetic of the Modern Hat -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김 정 신

目 次

I. 서 론	IV. 모자의 상징성
II. 모자의 기원 및 변천 과정	V. 결 론
III. 모자의 조형적 분석	참고문헌
1. 형 태	ABSTRACT
2. 소 재	

I. 서 론

복식은 의복과 장신구의 총합체로서 단순히 의복을 입는다는 개념 이외에 치장한다는 개념이 포함된다.

모자는 의복의 외관적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신체보호, 계급이나 신분, 종교적 권위의 상징, 장식 욕구의 표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동시대의 패션과 함께 변천해 왔다.

오늘날 단순화된 의복은 악세사리에 의한 다양한 연출의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악세사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자는 장식성이 강조된 조형요소로서 현대 패션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모자는 인체의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에 착용되므로 복식요소 중 시각적 인지도가 높은 대상으로 복식미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모자의 조형미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자를 각 개인의 외모에 뚜렷한 분위기를 갖게 하고 개성을 표현케 하는 이상적 대체, 즉 조형예술의 한 형태로 인식해 보고 모자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과 기능의 고찰을 통해 조형미를 탐구함으로써 현대 모자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부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패션잡지, 작품집 등에 발표된 작품 중 조형성이 강조된 모자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 모자에 한정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자의 기원 및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모자의 조형적 측면을 형태, 소재의 조형요소에 따라 분석한 후 각각의 조형미를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모자에 내재된 상징성을 살펴보고, 현대 모자 디자인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모자의 기원 및 변천과정

선사 시대로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체를 장식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모자는 자연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풀, 깃털, 나뭇잎을 머리에 꽂아서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질 때부터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며, 모자의 형태 또한 다양한 사적(史的) 변천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시대에 두건으로 사용되었던 커치프(kerchief)는 이마 위에 낮게 쓰고 뒤에서 묶어 양옆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장식한 띠를 머리에 둘러는데 이것이 현대 모자 밴드의 시초가 되었다.¹⁾

이집트는 간단한 의복에 비해 머리 장식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밴드 리본과 머리 수건이 이집트 여자들의 모자 대용이었고, 왕은 삼중관을 쓰거나 귀족들과 같이 터번을 쓰고 서민들은 브림(brim)이 달린 모자를 썼다.

페르시아에서도 왕은 삼중관이나 주교의 종교 의식용 모자를 쓰거나 터번을 머리에 두르는 두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 중동의 터번으로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 모자인 피리지언(phrygian)의 독특한 모양이 후세에 자주 재현되어 이용되었다.²⁾ 그리스 복식은 머리 형태에도 관련되어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머리를 즐겨 여자들은 좀처럼 모자를 쓰지 않았으나 햇볕이 강한 날에는 히마티온(himation), 페플로스(peplos)를 쓴 위에 토리아(tholia)(그림 1)를 썼다.



(그림 1) Tholia (그리스 시대)

Voyages autour d'un chapeau, p.14.

로마는 모자와 머리 장식이 많은 형태로 발달되었는데 그 종류를 보면 머리 모양에 꼭맞는 갈라루스(galarus) 모자산(crown)이 낮고 양쪽 귀를 덮는 플랩과 넓은 브림(brim)이 있는 카우시아(causia), 본넷(bonnet)의 일종이며 펠트로 만들어 경기자가 썼던 필로스(pilos), 예식용 베일이나 경기장에서나 외출시 해가리개용으로 사용되었던 페타수스(petanus) 등이 있다.³⁾

비잔틴시대 동부 유럽 여자들은 많은 진주로 커다랗게 장식된 터번을 썼고, 북유럽 지방의 모자는 단순하거나 머리에 꼭맞는 형태로 고안되어 사용되었다.

중세 초기 여성용 모자에 특이한 형태가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베일이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로 전개되었다.

서민 계층은 모자 대신 후드를 많이 착용하였다. 12세기에 여자 헤드 드레스(head dress)에 처음으로 머리 수건이 아닌 모자의 형태가 출현하였다.

1) K. M. LESTER & B. V. Oerke, Accessories of dress, Illiroise : chas, A. Benneffe co., inc, Peoria, 1954, p.7.

2) 임원자, 이순원 공저, 복식디자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p.103.

3) Rasara, Accessory, Rasara Publishing co, 1992, p.17~22.

여성 모자형태는 작은 퓌 박스(pill box)⁴⁾형이 많았고, 턱을 가리는 넓직한 토크 밴드(Chin band)를 하고 그 위에 모자를 썼다.



(그림 2) Coiffe (12세기) Accessory p.29.

코와프(coiffe)(그림 2)는 상류층에서 쓰기 시작한 모자로 어린 아이 모자처럼 꼭 맞고, 턱 밑에서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세 후기 예술 양식인 고딕은 로마네스크의 수평선의 강조에 비해 수직선의 효과를 강조한 합리적인 구성과 기능적인 장식성을 갖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15세기 말에는 길고 높은 모자에닝(hennin)(그림3)이 출현했다.

샤쁘롱(chapron)원형의 캡, 에닝, 그물 모양의 헤드 드레스 등 고딕 말기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비슷하게 계속 사용되었다.⁵⁾

르네상스시대에는 새로운 양식의 모자가 나타나고 있다. 의복의 특징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슬래쉬(slash)를 뜰 수 있는데, 그 경향은 모자와 구두에까지 나타났다. 또한, 이 시대에 모자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거대한 에닝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토크(toque)⁶⁾가 나타난 것이다.



(그림 3) Hennin(15세기)
Le Chapeau et la mode p.8.

17세기 바로크 복식은 불규칙적이고 열정적인 감각으로 장식이 조화되지 않은 채, 호화로운 장식성이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장식과잉으로 리본, 레이스가 남용되었고, 기술과 색상의 발달로 의상에는 화려한 프랑스 자수가 많이 이용되었다. 가발의 유행으로 모자의 사용은 그리 많지 않아서, 모자의 종류 또한 다양하지 않았다.

18세기초 로코코 양식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장식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균형미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의 곡선으로 구성된 밝고 화려한 귀족중심의 문화였다.⁷⁾

이 시기 모자는 실용적이기 보다 장식적인 용도로 더 많이 착용되었다.

4) Pill box : 위가 평평하고 얇은 원형에 챙이 없는 모자

5) 박혜경, 모자에 활용된 섬유재에 관한 연구 -현대 여성용 모자를 중심으로-, 순명여대 산업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0.

6) Toque : 챙이 없으며 머리에 꼭맞는 모자

7) Rasara., op. cit., pp.36~38.

머리 장식은 과장되게 행해져서 그 형태는 거대해졌다. 로코코의 과잉장식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연미를 추구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뒤이어 나타난 신고전주의에 의해 복고적인 머리스타일이 재현되었다.

엠파이어 스타일은 고대 그리스 복식을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장식의 화려함보다 자연적인 모습을 강조한 양식으로 머리장식이나 모자도 그리스풍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애용되었고, 장신구로는 모자와 같이 머리를 덮는 것보다, 머리의 자연스러운 형태가 드러나는 헤어밴드 등이 유행되었다.

여성의 본넷(bonnet)과 햇(hat)은 이시기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804~1807년경에는 넓은 챙이 있는 대형모자가 유행했다.

점차 고대 풍이 사라지면서 모자산이 낮아졌다가 1812년부터는 다시 높아졌는데, 깃털 장식이 부착되어 높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1815~1848년 경에는 귀족풍의 조이고, 부풀리는 형태의 복식이 유행하였고, 여기에 착용된 본넷은 높은 크라운이 사라지고 브림(brim)으로 뺄을 감싸 넓은 리본으로 턱아래나 뺨옆에서 묶어 고정시키는 형태이다.

1848~1870년에는 제2의 로코코 시대라 할만큼 우아하고 장식적인 복식이 유행되었는데, 여기에 착용된 본넷은 많은 절개선으로 나뉘고 프릴이 층지게 첨가되었다.⁸⁾

1870~1890년에는 여성들의 의상이 간소해지고 남성복화라는 대담한 변혁과 함께 모자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본넷은 대체로 소형으로 정장과 함께 착용되었고, 사뵈는 브림(brim)과 크라운(crown)을 변형하여 여러 장식으로 크기가 대형화되어 사교용으로

로 착용되었다.

20세기가 시작된 후 4년동안 여성모자에도 아르누보양식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 이후 모자의 브림(brim)은 삼각모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항상 곡선 모양을 유지했다.

1904~1907년 사이에 머리와 모자들의 크라운(crown)이 높아졌고, 브림(brim)의 넓이는 축소되었다.

1905년에는 크라운(crown)이 높고 둥근 밀짚중산모가 유행했다.

1910년대에는 세계대전으로 복식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짧은 스커트의 보편화이고, 모자는 폭넓은 브림(brim)과 크라운(crown)이 높은 형태가 유행하였고, 장식으로는 새의 깃털을 많이 사용하였다.

1911년부터 행사때 쓰던 크고 아름다운 모자의 경우를 제외한 모자들은 대체로 작아졌다.⁹⁾

1920년대 모자는 대부분 샤넬이 전쟁전 소개한 토크(togue)와 클로쉬(cloche) (그림 4)모자들이 유행하였다.



(그림 4) Cloche (1920)

Voyages autour d'un chapeau, p.53.

8) Libid., pp.44.

9) Flona clark, Hats—the costume Accessories series—, General Editor : Dr. Aileen Ribeiro, 1982, p.144.

1920년대 말에는 라인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스커트는 1920년대 중반의 길이보다 길어졌고, 옆이나 뒤로 플러어를 달고 아래쪽으로 늘어지게 라인이 변함에 따라 모자선도 변하기 시작 이마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브림(brim)을 없앤 토크(togue)형태가 유행되었다.¹⁰⁾

1930년대에는 낮은 크라운(crown), 스넵 브림(brim)에 끈을 매어 착용하였다. 즉, 머리의 윤곽을 가리지 않는 조그만 모자들이 생산되었는데, 그 한예로 스키피아렐리(Schiaparelli) “양말 모양” 모자와 마린(Marlene), 디트리쉬(Dietrich)의 베레모도 많이 착용되었다.

1933년에는 뚜렷한 스타일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스키피아렐리(Schiaparelli)의 컬렉션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시기 봄에는 브림(brim)과 크라운(crown)이 있는 카우보이식 모자와 피리지언 본넷, 필박스(pillbox)등을 발표했고, 아그네스가 선보인 까만 새틴으로 된 세시아(chechia)¹¹⁾는 1934년 높은 솟은 코삭(cossack)¹²⁾으로 변형되어 쓰여졌다.

이 당시에는 특정한 모자스타일이 지배되지는 않았으나 브림(brim)을 자연스럽게 접어들거나, 앞, 뒤, 위쪽을 향해 경사지게 변형한 형태의 모자인 스캡 캡(Scap cap)이 나타났다.

이것은 스키피아렐리의 던스 캡(Dunce cap)으로서 소재는 벨벳, 펠트로 사용되었다.¹³⁾

1930년 중반이되자 여러사건들의 영향으로 군복스타일 즉, 군복에 쓰이는 소품을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모자는 나폴레옹의 군복을 응용한 삼각, 이각, 사각모자형태가 유행하였다.

1937년에 스키피아렐리의 초현실주의에서 영감

을 받은 신발모자가 나타났고, 터번은 계속 발전하여 착용되었다.

제2차 대전으로 1940년대의 복식은 남성적이었으며, 1940년대초 몇년동안은 작은 모자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눌러쓰는 스타일로 터번, 테일러드 베레(tailored beret), 브림(brim)등 작은 형태의 모자가 유행되었다.

1942년 겨울 빅토리아 시대의 모자에서 착안된 카포트(Capote) 모자에서 스카프를 이용하는 방식은 베일의 응용으로 발전되었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뉴-룩(New Look)패션을 소개했고 이 패션이 1950년대초 5년동안 패션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뉴-룩(New Look)은 양재업의 부흥을 가져와 모자와 장갑 등의 악세사리가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모자의 형태 역시 아주 작은 것이나 큰 것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졌다.

1950년대 초반에 가장 인기 있었던 모자는 머쉬룸햇(mushroom hat)이었다. 1960년대에는 모피와 니트를 소재로한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의상과 조화되어 제시되었다.

1960년대의 새로운 급진주의는 브림(brim)의 양끝이 살짝 올라간 형태로 끈을 자유롭게 맬수있으며, 모양을 변화 시킬수 있는 카우보이 모자로 대변 되었다.¹⁴⁾

1960년대말 “젊은이들의 혁명”이 일어나자 약 100년 동안 상류사회의 패션에 사용된 장갑, 모자 등의 악세사리들은 특별한 행사때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 결과로 전통적인 여성모 제조업자의 기술이 필요치 않는 실용적인 모자들이 등장하였다.

1965년 스카프 모자는 동인도나 세헤라자드의

10) Madeleine Ginsbourg, The hat-trend and traditions, Foreword by hardy amies, 1990, pp.114~115.

11) Chechia : 원통모양의 높은 모자.

12) Cossack : 러시아 기마병이 쓰던 챙이 없는 털모자.

13) Jody shields, Hats a stylish history and collector's guide, New york : clarkson potter, 1991, pp.32~37.

14) Libid., p.110.

모티프에 영향을 받아 과도한 사치성을 띠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번쩍번쩍한 오간디를 감아올린 터번과 짚으로 만든 클로쉬에 스카프를 매 나비모양의 장식을 하는 스타일이 많이 착용되었다.

1967년에는 우주비행사의 본넷과 우주비행사로 부터 영감을 받은 투구형 모자가 사라진 반면, 강한 기하학적 부리와 프린트가 의류와 모자에 많이 사용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패션계는 유니섹스(Unisex)풍조가 나타났고, 그 결과는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미래 지향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자른 머리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다니는 것이 유행함으로써 모자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이 시기부터 디자이너들에 의해 의상과 함께 컬렉션에서 발표되면서 모자는 몇몇 사람들의 개성있는 연출을 위한 악세서리로 착용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모자들은 예전과 달리 관습에 묶이지 않았기에 더 자유롭고 대담해 질 수 있었다.

데이비드 쉐링(David shilling)이 바로 이런 모자의 전문가로 유명해졌는데 그의 고객들은 대담하고 눈에 띄는 모자를 즐겨 착용하기도 했다.¹⁵⁾

1980년대 이후 복식은 미래세계가 공존하는 듯한 분위기와 과거에의 향수를 자아내는 조화를 보이고 있다.

또, 장식을 중시하고, 활동성에 관계없이 실루엣을 과장시킨 조형적인 모자의 모드가 유행하였다.

처음에는 클래식하거나 스포티한 감각에 여성적 요소와 낭만적인 요소가 가해진 모자가 유행하였다. 이 당시의 모자는 복식에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였으며, 각 개인의 개성에 따라 이전의 모자와는 다른 전통에 구애받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모자들이 착용되어지고 있다.

Ⅲ. 모자의 조형적 분석

1. 형 태

모자는 본래 크라운(crown)과 브림(brim)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말한다.

현재에는 캡(cap), 토크(toque), 후드(hood)등을 포함하는 머리 덮개의 총칭으로 되어 있다.¹⁶⁾

모자는 구조상 브림(brim)이 있는 모자를 햇(hat), 없는 모자를 캡(cap), 머리뒤에서 덮어 씌우는 모자를 본넷(bonnet), 머리에 여유있게 씌어진 두건형의 후드(Hood)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자를 점, 선, 면, 형등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 완성된 조형물로 이해하고 구조상 브림(Brim)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중심으로 기하학적 형태와 자유로운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기하학적 형태

기하학적 형태란 모든 시각적 대상을 배제하고 대상과는 무관한 순수한 형태인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간결하게 응축된 단순화된 형태로 이것을 공간으로 입체화 시키면 원뿔의 뿔체와 각기둥, 원기둥의 기둥체와 다면체 그리고 구의 형태로 나타난다.¹⁷⁾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정확함과 차가운 의미를 지닌 형태로 볼수 있으며 형태가 가진 단순함은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하면서 조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징을 현대모자 디자인으로 응용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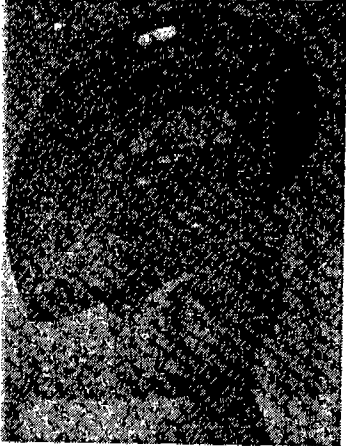
Cheri-Bibi작품(1982)(그림 5)은 도로를 응용

15) Flona clork., p.61.

16) 박혜숙 편저, 제도의 기초와 응용, 진명 문화사, 1978, p.7.

17) 권상구, 기초 디자인, 서울: 미진사, 1988, p.165.

해 장식효과로 표현된 타원형 베레(Beret)모자이다. 경사진 타원형의 도로에 자동차 장식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므로써 운동감과 함께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그림 5) Cheri-Bibi작품(1982)
Voyages autour d'un chapeau, p.85.

Junko Koshino작품(1990)(그림 6)은 크라운을 기하학적 형태로 변화시켜 강조한 토크(Toque)형 모자이다. 타원형을 단위로하여 등근 입체 조형물로 확대시킨 모자에서 미래적인 형상의 구조적 조형미가 보여진다.



(그림 6) Junko Koshino 작품(1990)
Voages autour d'un Chapeau, p.78.

Hanae Mori 작품(1990)(그림 7)은 기하학적 형태를 모자구조로 응용한 작품이다. 모자의 삼각뿔 형태에서 단조로운 형태미와 이지적인 분위기의 현대 감각이 보여진다.



(그림 7) Hanae Mori 작품 1990. s/s Collection.

Karl Lagerfeld 작품(1936)(그림 8)은 크라운을 나팔모양으로 응용한 토크(Toque)형 모자에 서 구조적인 형태미와 조형성이 돋보인다.



(그림 8) Karl Lagerfeld 작품(1930)
Voages autour d'un Chapeau, p.157.

Christian Lacroix작품(그림 9)은 곡선을 옆으로 길게 연장시켜 크라운을 변형시킨 모자로 유연한 곡선에 의한 유동미와 꽃장식은 여성스런 분위

기를 고조시켜 준다.



(그림 9) Christian Lacroix 작품(1936)
Voages autour d'un Chapeau, p.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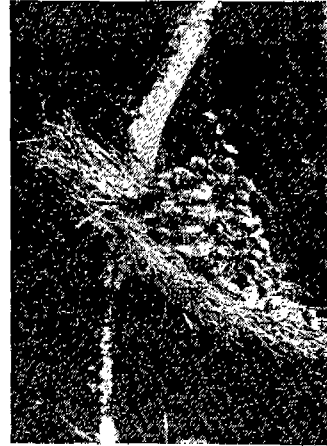
Philip Treacy 작품(1992) (그림 10)은 브림(B-rim)과 크라운(Crown)을 굽기가 다른 선을 반복
과 교차로 밀집시켜, 생동감있는 조형미가 돋보인
다.



(그림 10) Philip Treacy 작품(1992)
Les Chapeaux, p.61

김정신 작품(1994) (그림 11)은 불규칙한 선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기하학적 형태로 조직된 카플
린(Capline)형 모자이다.

독특한 재질의 효과와 모자형태가 잘조화된 작
품이다.



(그림 11) 김정신 작품(1994)
모자형상전

2) 자유로운 형태(비기하학적 형태)

자유로운 형태는 자연 물상에 추상을 거쳐 인간
의 창작적 미의식에 의하여 탐구된 개성이 강한
조형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예술세계의 도구로 하여 모자형
태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단순히 모방하
기보다는 디자이너의 주관에 의한 새로운 창출로
표현되어 구체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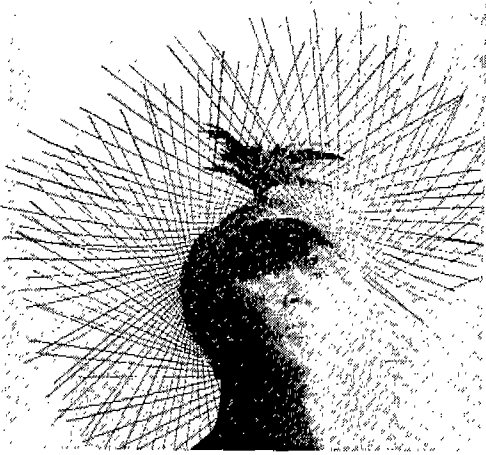
구체화된 형태의 현대모자물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한다.



(그림 12) Christian Lacroix 작품 1980, S /S Collection

Christian Lacroix 작품(1986)(그림 12)은 자연형 태를 응용 크라운 부분을 변형시킨 토크(Toque)형 모자이다.

자유곡선에 의한 윤곽에서 굽동미가 강조되어 있고, 폐각의 형태를 입체화시킨 내부구조물에서 시각적 흥미와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13) Issey Miyake 작품(1987)
Photo Graphs by Irving Penn, p.45.

Issey Miyake 작품(1987) (그림 13)은 다양한 방향으로 선들이 교차되어 점층효과를 이룬 조형성이 돋보인다.

2. 소 재

모자의 소재는 계절, 장소,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의복의 재료가 되는 모든 소재는 모자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주의할 것은, 형을 만들기에 적당한 탄력성, 유연하고 열색성이 좋은 것, 통기성, 보온성이 큰 것, 가볍고, 감촉이 좋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가 모자에 적합한 재료라 할 수 있다.¹⁸⁾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짚과 마, 파나마 등의 식물성 섬유를, 가을, 겨울에는 보온성이 좋은 펠트와 모직, 털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장식으로는 리본, 레이스, 꽃(조화), 깃털등을 사용하였다.

딱딱한 구조에서 벗어난 유연한 형태의 모자 선보여짐에 따라 인조섬유와 일반의류용 직물인 견, 면등이 모자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소재를 독특한 재질로 변화시켜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현대에는 공업디자인을 가미한 아크릴, 플라스틱, 경금속 등의 재료를 소재로한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독특한 질감의 미적효과를 갖고 표현되어 지고 있다.

1) 짚(straw)

짚은 짚 그 자체만으로도 유행되는 악세사리의 한 형태가 될수있는 아주드문 재료 중 하나이다.

짚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름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다. 또한 짚을 다루는 일정한 방법이 있어,¹⁹⁾ 형태응용이 용이한 짚의 특성 때문에 밀짚모자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자 제조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형태응용이 용이한 밀짚을 소재로 현대화 시킨 작품이다(그림 14, 15).



(그림 14) Krizia 작품 1980, S/S Collection.

18) Rasara, op. cit., p.85.

19) Colin mc dowell, Le Chapeau et la mode, celiv, 1992, p.60



(그림 15) Karl Lagerfeld 작품
1991, S/S Collection.

krizia작품(1980)(그림 14)은 패각이 갖는 선의 리듬과 변화성을 모자의 질감으로 표현한 본넷형 밀짚모자이다.

Karlagerfeld작품(1991)(그림 15)은 사선으로 흐르는 세련된 형태에서 비대칭 균형미와 조형미가 보여지는 밀짚모자이다.

Philippe Mode작품(그림 16)은 밀짚소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재질이 다른 망사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얇은 챙에 의해 가려지는 공간을 투시하는 기능과 함께 시각적 흥미를 자극하는 카플린(capline) 형태의 밀짚모자이다.



(그림 16) Philippe mode Les chapeaux, p.75.

2) 펠트(felt)

펠트란 실이되기 직전의 섬유를 압축해서 만든 것이다.

펠트는 보온력과 마찰에 강하고, 방수성과 경도가 뛰어난 재료적 특징과 흡수성이 커 염색이 용이하며, 다양한 기법으로의 제작이 용이한 특징으로 다른 조형예술에서 볼수 없는 재료 특유의 표현가치를 갖고 있다.²⁰⁾

이와같은 특징으로 펠트는 실용성을 목적으로한 디자인에서 조형성이 강조된 작품에 이르기까지 표현을 가능케 하는 모자 소재로 쓰여지고 있다.

Schiaparelli작품(1938)(그림 17)은 초현실주의의 영감을 표현한 다양한 모자형태에서 펠트 소재가 가진 특징이 보여진다.



(그림 17) Schiaparelli (1938)
Le chapeau et la mode, p.170

자유로운 곡선의 유연함으로 형상화된 모자에서 부드럽고 우아한 조형미가 느껴지는 베레모 형태의 모자이다.

J. suzanne작품(1942)(그림 18)은 펠트를 소재로한 토크형태에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이용한 조화를 장식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하였다.

20) 이윤우, 양모 펠트에 관한 연구, 숭실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15.



(그림 18) I Suzanne(1942)
Voyages autour d'un chapeau. p.149.

Marie Mercie 작품(그림 19)은 제작이 용이한 펠트의 특성을 살려 토마토형 크라운을 표현하고 작은 브림(Brim)을 달아 조화시킨 작품이다.



(그림 19) Marie Mercie 작품
Voyages autour d'un chapeau. p.160.

3) 깃 털

깃털은 모자에 화려한 장식효과로 사용되었다. 깃털장식이 한때 신분계층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자 죽은새의 충수는 어마어마 했다. 이런 이유로 야생조류의 시판을 금지시켰으며,

깃털을 이용한 장식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깃털에 대한 논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늘날은 다시 깃털이 가진 다양한 표면 효과와 부드럽고, 염색이 용이한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매력적인 보사의 소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Claude saint cyr 작품(1900)(그림 20)은 깃털을 소재로한 모자들로 아주가늘고 부드러운 선들의 집합과 부드럽고 다양한 형태의 면이 입체로 발전한 것이다. 섬세한 선들이 밀집되어 생긴 매끄럽고 윤기나는 표면에서 천연질감의 우아미가 보여지는 작품이다.



(그림 20) Claude Saint Cyr 작품(1900)
Les chapeaux. p.63



(그림 21) Philip Treacy 작품(1991)
Le chapeau et la Mode. p.199.

Philip Treacy작품(1991)(그림 21)은 길이가 다른 깃털을 밀집시킨 형태를 끈장식에 의해 두개의 크고 작은 원추형으로 표현된 모자로 깃털 재질에서 느껴지는 신비스러움과 함께 조형성이 강조된 작품이다.

Philip Treacy작품(1992)(그림 22)은 가는 깃털을 다양한 방향으로 교차시켜 반복하므로써 복잡한 내부구조와 자유로운 형상으로 조형성을 강조시키고, 깃털표면의 광택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림 22) Philip Treacy작품
1992. s /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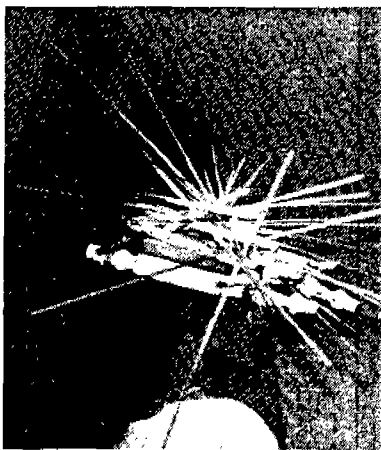
4) 기 타

인조섬유와 독특한 재료를 응용하여 모자소재로 이용한 Studio Bercot(1980)작품(그림 23)은 길이와 굵기가 다른 나무소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차되어 조화를 이룬 추상적 작품으로 날카롭고 예민한 감각의 분위기와 함께 예술성이 돋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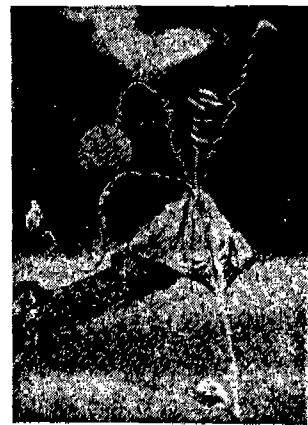
Stephen Jones(1986)작품(그림 24)은 얇은 재질의 선들이 말려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표현된 형태로 자유분방하면서 절제되어있는 신비스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림 24) Stephen Jones작품(1986)
Les chapeaux, p.19.



(그림 23) Studio Bercot작품(1980)
Les chapeaux, p.16



(그림 25) 김정신 작품(1994)
모자 정신전

김정신(1994) 작품(그림 25)은 삼각형 구조의 모자로 비닐에 열을 가해 독특한 질감으로 입체감을 주었으며 서로 다른 방향의 자유로운 곡선 끝에 크고작은 붓과 스킨로봇을 장식하여 조화를 이룬 조형성이 강조된 작품이다.

김정신(1994) 작품(그림 26)은 발린 종이를 이용 손뜨개질로 크고작은 원형의 모티브를 만들어 독특한 재질감을 갖게하고, 다시 원과 선을 엮어 조화시킨 작품이다.



(그림 26) 김정신 작품(1994)
모자 형상전

IV. 모자의 상징성

1. 권력과 특권

모자란 가장 인위적인 동시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지만 패선계의 모든 악세사리 중에서도 가장 위력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모자는 권력의 상징행사와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권력의 가장 강력한 상징물은 왕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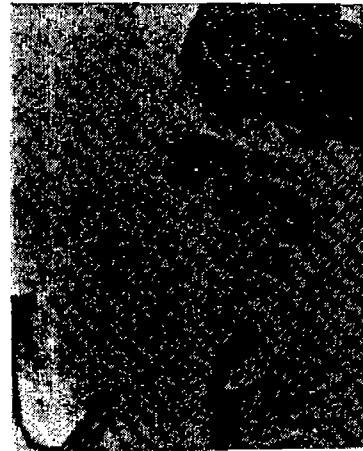
왕관은 너무 비싸고 불편했기 때문에 매일 비공식적인 자리에 쓸 수 있는 대체물이 요구되었는데, 모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권력과 특권을 나타내던 의례용 모자(Corn-chef)를 궁정인들은 초상화의 초벌을 그럴 때도 꼭 쓰고 있었다. 남성용인 벨벳의 평평한 모자와 여성용인 머리쓰개는 그들이 어떤 사회적 계층에 속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것이었고, 사회적 인지도를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림 27)은 Vivienne westwood의 작품으로 왕관이 상징하는 권력과 특권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형태만을 응용 현대화시킨 작품이다.

18c초엔 꽃모양 기장이 달린 모자들이 상급하인들에게 있어서 권력의 상징으로 착용되었는데 아직도 유명호텔의 제복입은 수위들이 착용하고 있다.

또, 18c 특징적이던 삼각모는 유럽의 귀족, 궁인들 중산층 성직자 그리고 장인들이 썼던 미를 뽑내기 위한 도시형 모자이기도 했다.



(그림 27) Vivienne Westwood작품
1986~87, A/W Collection.

의례행사때나 유니폼 복장에는 이각모가 도입되었는데, 이 모자는 감성보다 절제를, 아름다움보다 권력과 엄숙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착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각모가 나폴레옹의 모자가 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림 28)은 이러한 형태를 응용한 Jean 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서로다른 분위기의 소재를 장식하므로서 연출되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색상의 통일로 조화시킨

작품이다.



(그림 28) Jean -Paul Gaultier작품
1992, s / s collection.

19세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기차는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 중요성이 철도청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복과 태도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 예로 1930년대까지 영국 역장은 정치적으로 혹은 사교계의 중요한 인사가 역에 올때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실크햇을 착용하였다.²¹⁾

19세기 내내 실크햇은 권력을 상징하는 모자였다. 자유업에 종사했던 정치인들, 스스로 신사라 생각했던 사람들 뿐 아니라 장례식을 주선하는 사람들도 엄숙하게 보이도록 이모자를 착용하였다. 이처럼 정치적 모자는 권력과 복종을 상징했으며, 군인의 모자(Courve-chef)는 더욱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착용되었다.

Chapeau melon(멜론) 모자는 형태가 우습긴 했으나, 오랫동안 권력을 상징하는 남성패션에서 주된 악세사리였다. 이 모자는 20세기까지 재정과 사업가들이 착용한 모자로 권력을 상징하는 한

편, 꺾어버린 과거의 위엄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 기도했다. 원래 이머론 모자는 들판에서 일하던 하인이나 일꾼들을 위한 것이었다.²²⁾

그리스와 로마노예가 자유의 신분이 될 때 쓰곤 했던 원추형의 부드러운 피리지언 본넷(Pyrigian Bonnet)은 전통적으로 “자유의 모자”라고 불렸다.

피리지언 본넷은 침입을 상징하는데 나쁘게는 사회과피를 풍은 의미에서는 규칙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통일을 이룩한 가리발디(Garibaldi)는 둥근 톱모양의 펠트모자를 이성과 독립의 상징으로 삼았다. 또 이모자는 이상주의자들의 상징처럼 되었으며 당시 현상들을 타파하고 부르조아지에 대항하며 예술적인 신념을 재 비판할 과제를 지닌 화가나 시인들이 선호하는 모자이기도 했다.²³⁾

2. 종교와 신앙심

모자들은 대부분 장식들이 없고, 어두운 편이며, 하늘을 향한 영혼의 구원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모자의 윗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만들었다.

이 모자들은 거룩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모자와 구별된다. 장식을 완전히 배제한 터키 승려들이 쓰는 모자는 순결함과 승려의 얼굴에서 떠오르는 종교적인 체험을 상징한다.

이 터키모자에서 상징되는 고요함과 엄숙함은 교황의 모자인 미트르(Mitre)의 힘과 티벳 승려의 모자에서 보이는 단순함의 멋속에서 되찾을 수 있다.

(그림 29)는 (그림 30)에서 느껴지는 엄숙한 분위기의 두건을 변형시켜 자유스런 선에 의한 리듬감으로 조형성을 강조시킨 작품이다. 제2차세계대전중 프랑스의 저항군들은 마스크의 베레모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과피를 수호하는 천사’ 부대

21) Colin mc dowell, op. cit., p.122.

22) Libid., p.68.

23) Libid., p.29.

에서 쓰는 모자이다. 그러나 쿠바혁명의 영웅인 Che Guevara는 혁명 게릴라의 상징으로서 베레모를 착용하였다.



(그림 29) Christian Lacroix작품
1986, S/S Collection



(그림 30) Margaret Beaufort(자화상)
Le chapeau et la mode, p.40.

또 현대 “거리모자”중 가장 독특한 것은 래스터패리언의 거대한 베레모였다. 자마йка에서 일어난 이 래스터패리언들은 1930년 이디오피아 황제가 된 Haile Selasse의 이름에서 나왔다.

이 운동은 종교적이자 문화적인 움직임이었다.

따라서 이 모자는 유대인들의 모자처럼 패션모자가 아닌 종교적인 모자이다.

V. 결 론

모자는 예로부터 복식의 한 부분으로 조화를 이루어 착용되어 왔으며, 현대 산업 사회가 이루어져 오면서 의생활이 동서의 문화가 희석된 생활양식으로 바뀌어지고 전통적 관습이나 외양 등이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강조된 생활 패턴으로 변화되면서 모자의 감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대의 모자는 특수목적성외에 장식성이 강조된 조형요소로서 현대 패션디자인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자의 재료로는 의복의 재료는 물론 모든 소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디자이너의 창출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무한한 변화의 대상이다. 또한 모자디자인의 창조는 예술표현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모자가 현대 감각에 맞는 복장미를 완성시키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길 기대하며 모자를 조형 예술의 한 형태로 조명하고, 모자에 담긴 미적 특성을 토대로 디자이너의 창출 능력에 따라 표현된 작품을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의 모든 기본적인 형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매우 일찍부터 만들어 졌으며 모자형태 그 자체를 변형하기보다 크기, 장식, 비율 등을 변형시켜 왔음을 인식한다.

둘째, 디자이너의 창출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작품을 조형요소를 중심으로한 분석을 통해 모자 디자인의 조형미는 복장의 외형미 변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함으로써 현대 감각에 부응하는 모자디자인으로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상징적 의미의 표현수단으로 착용되었던 모자를 현대감각에 맞게 융용함에 있어 단순히 모방하여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조형요소에 의한

변화로 모자디자인의 미적 특징을 재창조 함으로써 기능과 미적인 측면을 공유한 모자디자인으로 개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상구, 기초 디자인, 서울:미진사 1988.
- 박혜숙, 제모의 기초와 응용, 진명 문화사, 1978.
- 박혜경, 모자에 활용된 섬유재에 관한 연구 - 현대 여성용 모자를 중심으로 - 숙명여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안영길외 역, 미학 예술학 사전, 서울:미진사, 1992.
- 이윤후, 양모 펠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은영, 복식의상학, 서울:교문사, 1995.
- 이화연외 2인 역, (M.J. Horn & MGurel), The Second Skin 의복: 제2의 피부, 서울:까치, 1988.
- 임원자·이순원 공저, 복식디자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2.
- 한석우, 입체조형, 서울:미진사, 1993.
- 최명상, 조형, 창미서관, 1978.
-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현영필 역, 대건사, 1979.
- Colin Mc Dowell Le chapeau et la mode, Celiv, 1994.
- Fiona Clark, Hat - The Costume accessories Series -, General Editor DrAileen Riberio, 1982.
- Jody shields, Hats a stylish history and collector's guide, New york: clarkson potter, 1991.
- K.M. Lester & B.V. Oerke, Accessories of dress, illiroise: Chas. A. Benneffe Co., Inc., Peoria, 1954.
- Madeleine Ginslourg The hat - Trend and Traditions -, Foreword By Hardy Amies,
- Marie Mercie, Sophie-Charlotte capdevielle, Voyages autour d'un chapeau, ram say say de cortanze, 1990.
- Par Florence M ller et Lydid Kamitsis, historiennes d'art Les Chapeaux - Une histoire de tete -, Syros alternatives, 1993.
- Rasara, Accessory, Rasara: Publishing co.,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Aesthetic of Modern Hat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hats are a form of plastic arts, the ideal means which provides characteristics aura for the appearance of a person and expresses his personality.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the hat designs,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ve aesthetic of hats and tries to show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modern hat design.

For the purpose this study needs to consider these points :

First, on the basis of the study of the culture of clothes from the ancient to the modern, the origin of hats and the process of changes in hats are examined.

Secondly, after analyzing of the formative aesthetic of hats, focussed on the form and texture,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irdly, the symbolic meaning of hats is studied and then how it was applied to the modern hat design is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ese considerat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we can see that all the basic shapes of hats were formed very early in the history, and hats' shapes were transformed rather by the changer of the size, decoration, and proportion of hats than by that of hat's form itself.

Secondly, analyzing various works of hat designers by focussing on the aspects of the formative aesthetic, this study can find that the formative aesthetic of hat design is very import-

ant in changing silhouette of clothes, and it has many possibilities of development to meet the modern sense.

And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in applying hats which had been symbolically used to the modern sense, we should pay attention not to simply imitate them, but to recreat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hat designs, so that we can develop the style of hats including both practical function and aesthetic element.